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중국 수출 서프라이즈 시사점

전지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점

- 5월 중국 수출: 시장 전망 상회, AI 투자와 전략산업이 수출 주도
- 시장 다변화: 신흥시장 고성장 지속, 다극화 가속
- 차이나 테크: 전기차 사례, 15.5 계획 기간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전망

5월 수출 서프라이즈:

- 중국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19.4%로 시장 예상(15.0%, Bloomberg)과 4월 실적(14.1%)을 상회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전년 대비 110.9%)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66.1%)의 수출 확대이다. 각각의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30.6%와 17.5%로 전체 수출 증가의 절반을 설명했다.
- 한편, 반도체와 컴퓨터 및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도 전년 대비 11.2%를 기록하며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중국 전략 산업의 수출이 견고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한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3%를 기록했으며, 4월 수출까지 발표된 리튬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 다변화: 다극화의 시대

- 중국의 시장 다변화 전략이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1~5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프리카(+25.8%) > 러시아/인도(+21.1%) > 아세안(+20.0%) > 한국/대만/일본(+19.8%) > EU(+16.3%)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8년에 걸친 미중 분쟁 기간 동안 脫 미국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아세안/BRICs, 중동/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한 결과, 대미 수출 비중은 '17년 19.1% → '26년 1분기 9.9%로 감소하였다.

미-중 분쟁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포스트 미-중 분쟁의 구도는 경제 분절화와 다극화 체제가 될 것이다. 15.5 경제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대외 무역 전략은 (1) 대외 개방과 신흥시장(Global south) 협력 확대, (2) 신품질 생산력 기반의 품목 고도화, (3) 공급개혁 3.0, 반내권화, (4) 현지화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차이나 테크 붐: 대대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예고

- 또 하나의 주목되는 수출 구조 변화는 '품목 고도화'이다. 중국의 하이테크 수출은 지난해 1.13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올해 1~4월 전기차와 하이테크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73.3%와 +31.3%로 전체 수출 증가율(+14.3%)을 압도하였다. 차이나 테크의 수출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년 108만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832만대로 연평균 50.4% 증가했으며 올해는 1,150~1,200만대 수출이 유력하다. 6년 만에 자동차 수출이 10.6배 이상 증가하는 대약진을 보여주고 있다. 15.5 경제계획 기간 동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범위는 차이나 테크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과 상용화 단계를 감안할 때 차이나 테크의 확장성은 AI 반도체/장비,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우주항공과 바이오 산업에서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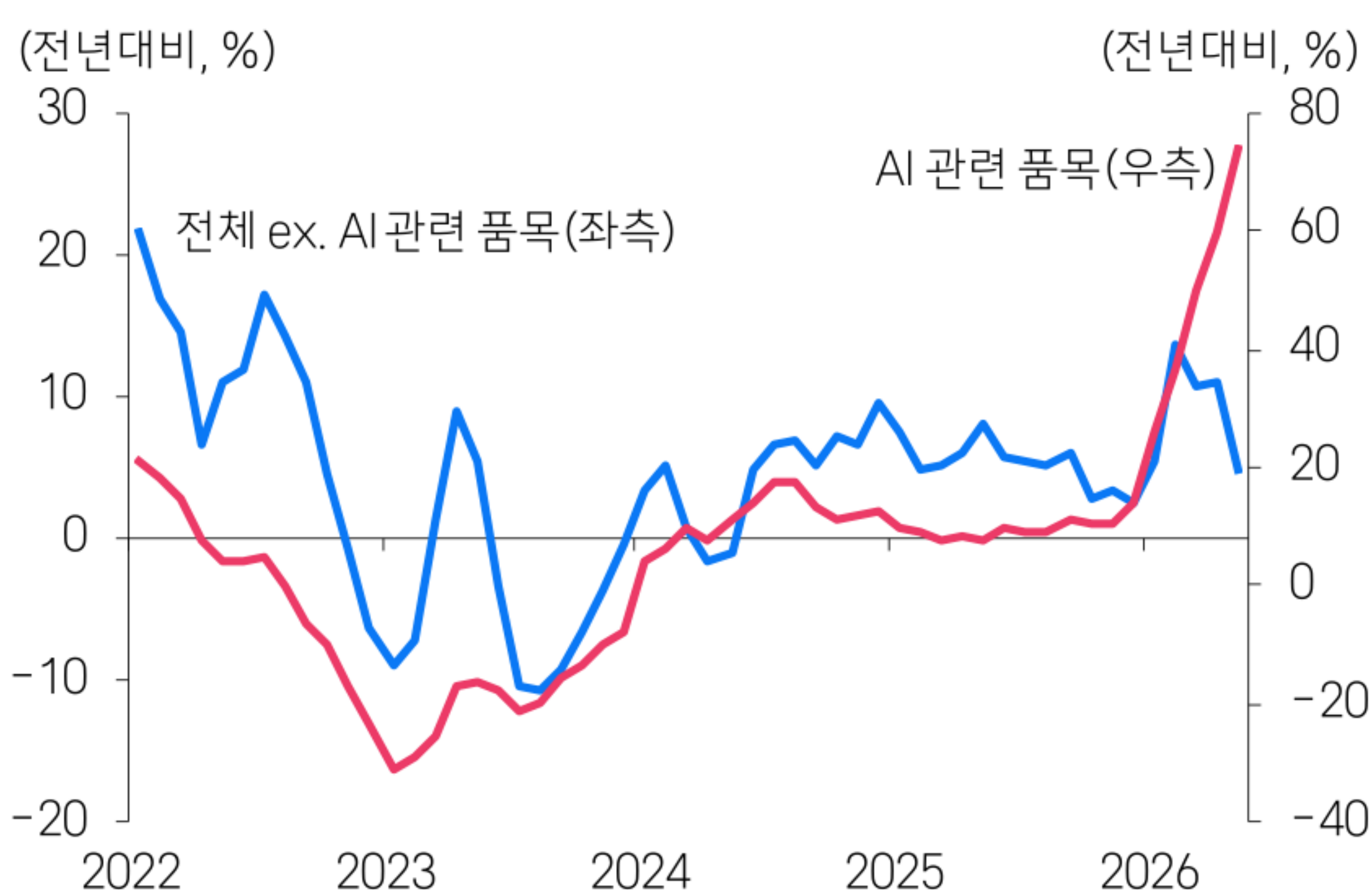
수출 서프라이즈

1~5월 수출 증가율 +15.6%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전략 산업 수출 증가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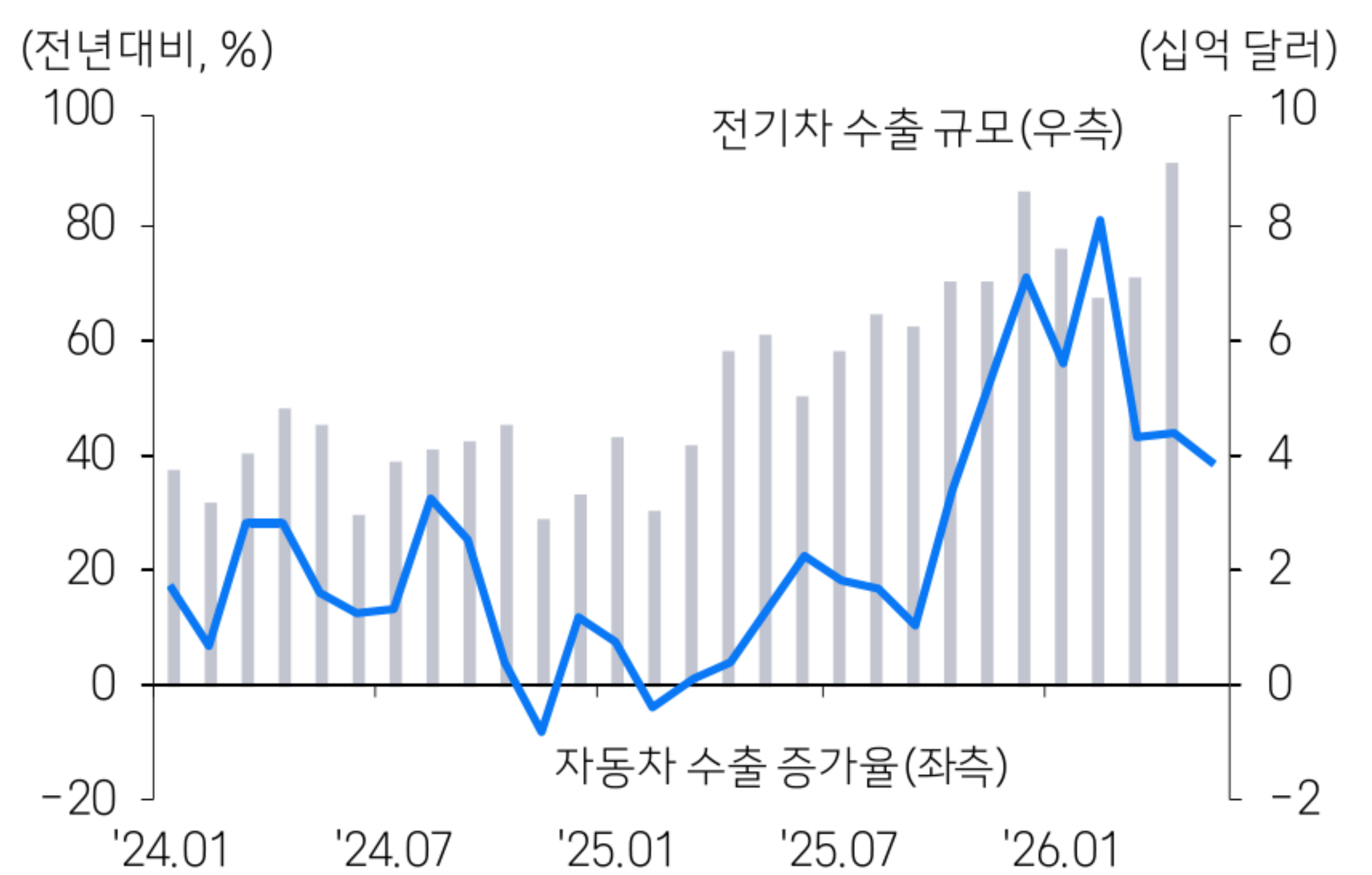
- 중국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19.4%로 시장 예상(15.0%, Bloomberg)과 4월 실적(14.1%)을 상회했다. '26년에 들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의 수출 확대이다. '26년 1분기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77.3%, 4월은 99.6%, 5월에는 110.9%로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25.2%, 35.0%, 30.6%를 기록했다. 아울러, CPU,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 컴퓨터 및 부품도 5월에 66.1% 증가하며 기여도는 17.5%에 달했다. 즉, 5월 수출 증가의 절반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부품이 기여했다는 의미이다. 다만,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 반도체 품목의 무역수지는 5월에만 -210.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25년 중국 반도체 수출의 41%는 가공무역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 내 부가가치 창출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반도체와 컴퓨터 및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도 전년 대비 11.2%를 기록하며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1분기 10.6%, 4월 7.5%). 이는 중국 전략 산업의 수출이 견고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한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3%를 기록했다. 또한, 아직 5월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다른 전략 산업 품목에서도 양호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월 리튬배터리는 29.9%, 태양광 패널 및 모듈은 38.9% 증가했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료 및 의약 제품도 9.1% 증가했다. 그에 따라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전략 산업 품목이 4월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15% 내외로, AI 투자 관련을 제외한 수출 증가의 약 1/3을 설명한다.
- 당사는 중국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전략 산업 품목의 수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의 수출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도 중국 수출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세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지역으로 교역 지역이 다각화되었으며, 이는 미국, EU 등 지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AI 관련 품목이 중국 수출 증가를 주도



참고: 3개월 이동평균, AI 관련 품목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부품의 합
자료: 중국 해관총서, 삼성증권

중국 자동차 수출 추이



참고: 5월 전기차 수출은 미발표
자료: 중국 해관총서, 삼성증권

시장 다변화

다극화의 시간

포스트 미중 분쟁 무역구조

- 중국의 시장 다변화 전략이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1~5월 중국 수출의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프리카(+25.8%)> 러시아/인도(+21.1%)> 아세안(+20.0%)> 한국/대만/일본(+19.8%)> EU(+16.3%)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중동(-0.7%)과 미국(-2.8%)은 역성장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중동을 제외하면 신흥국 고성장과 EU의 견조한 수요가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17년 촉발된 미-중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고관세 압박을 통해 1차 무역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나 8년에 걸친 분쟁 기간 동안 시진핑 지도부는 脫 미국으로 대응하였다. 아세안/BRICs, 중동/아프리카와의 경제적 결합을 강화하고 미국 단극 체제에 대한 결속력이 약한 프랑스, 독일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집중한 결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절반으로 감소('17년 19.1% → '26년 1분기 9.9%)된 반면에 신흥국 수출 비중은 33.1%에서 44.4%로 증가하였다.
- 미-중 분쟁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포스트 미-중 분쟁의 구도는 경제 분절화와 다극화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 시장은 5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상호 품목 관세 인하와 무역 확대에 합의함으로써 1분기를 저점으로 무역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대미 수출 증가율은 +35.4%에 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 이후 발생한 미-중 무역절벽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하반기 중국의 對美 수출 회복이 예상된다.
- 15.5 경제규획 기간 동안 중국의 대외 무역 전략은 (1) 대외 개방과 신흥시장(Global south) 협력 확대, (2) 신품질 생산력 기반의 품목 고도화, (3) 공급개혁 3.0, 반내권화, (4) 현지화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제조업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대체 에너지, 전기차/배터리 부문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산업 보호, 수입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과도한 가격 경쟁 차단과 '현지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 발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은 가속 구간에 진입하였다.

드라마틱한 중국 무역구조 변화

수출비중(%)	'17년 *미중분쟁	'25년 *트럼프 2기	'26,1Q	'25년 수출액 (십억 달러)	'17~'25년 CAGR (%)
미국	19.1	11.1	9.9	420.3	(0.4)
EU	16.5	14.9	15.1	560.2	5.2
한국+ 대만 + 일본	12.6	10.2	10.8	385.6	2.9
소합	48.3	36.2	35.8	1,381	
아세안	12.5	17.7	18.0	666.3	11.3
BRICS + 남미	10.8	14.2	14.0	536.9	10.4
중동 + 아프리카	9.8	12.8	12.4	483.8	10.2
소합	33.1	44.7	44.4	1,687	
홍콩	12.5	11.6	10.1	337.1	2.2
합계				3,770.6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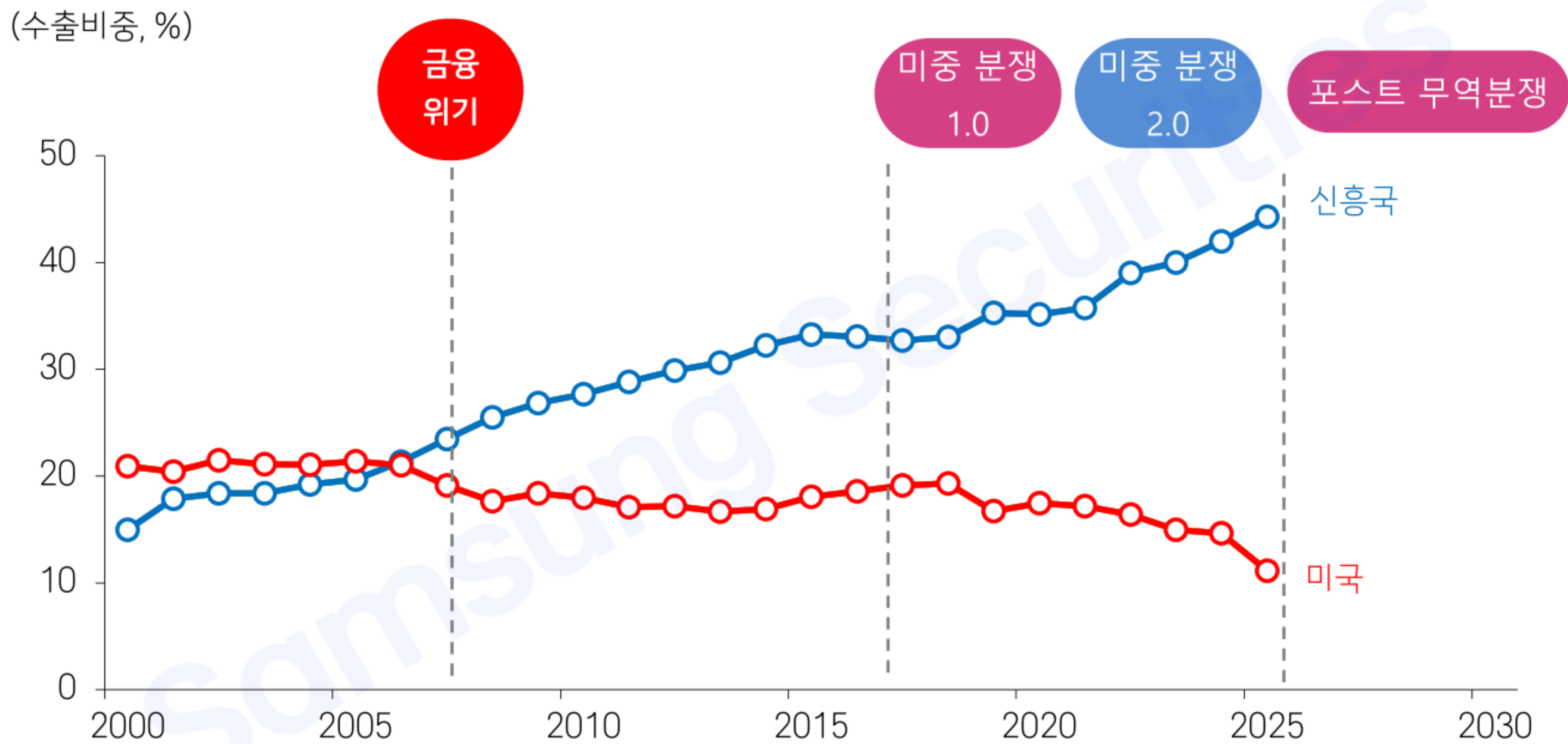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15.5 경제규획, 대외 무역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사례
I. 신흥시장/대외 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보호무역 대응,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Global south, 신흥시장 진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확대: 한국 FTA 2단계 협상 일대일로 벨트,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II. 신품질 생산성, 품목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화: 하이테크, 미래 첨단제조 수출 그린, 에너지 기술강화: 녹색 기술 시장 지배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반도체/피지컬 AI/우주/바이오 산업 3대 신성장 산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III. 공급 개혁, 반내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분별한 출혈 경쟁(내권화) 규제 한계 기업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과잉 전통산업/친환경 밸류체인 플랫폼/태양광/소재/전기차 등
IV. 현지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주의 돌파 전략 신흥국 시장 선점, 기술 표준 수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ar shoring: 헝가리/체코/멕시코 아세안/중동 아프리카 전기차, 태양광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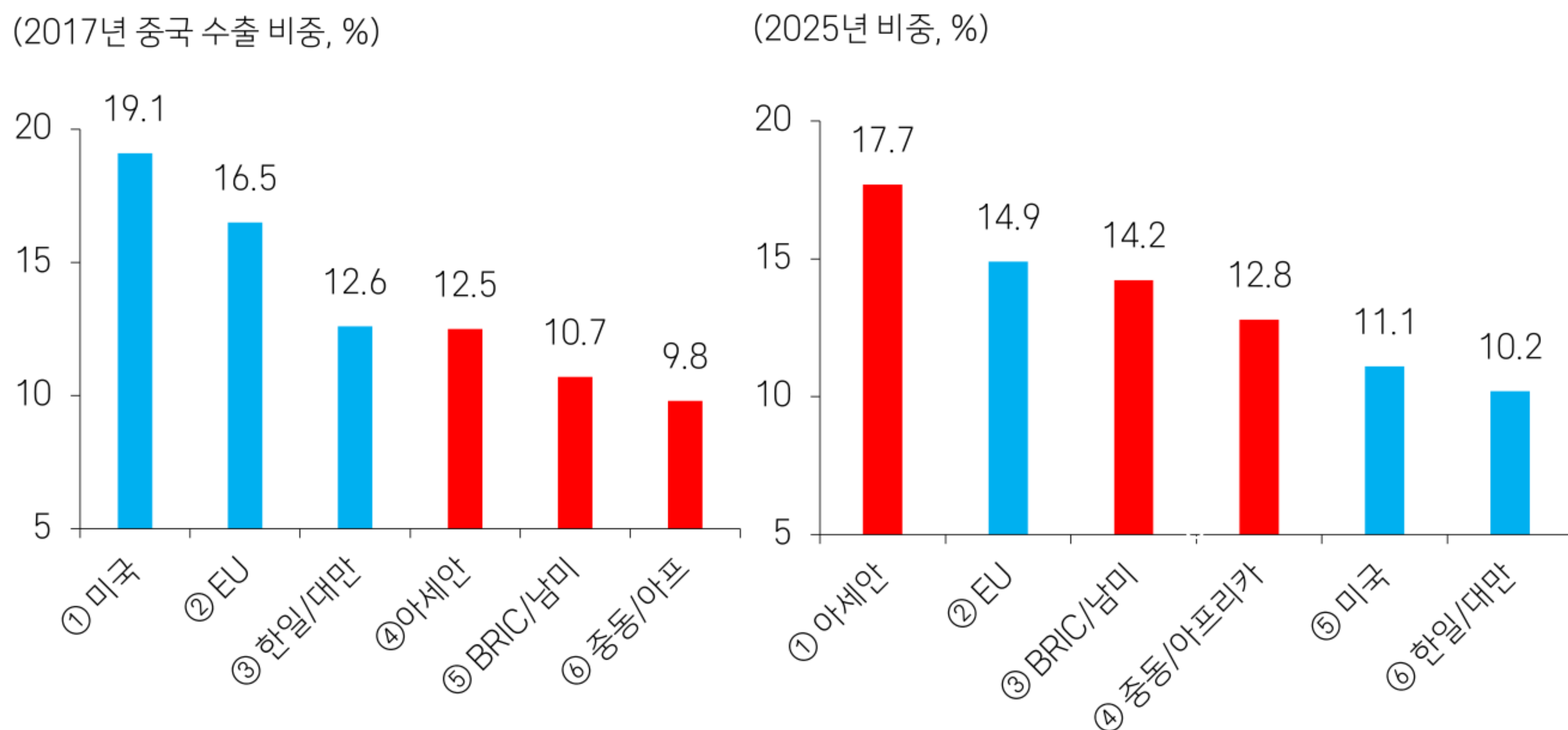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정리

중국 수출, 신흥시장 고성장 지속



자료: CEIC, 삼성증권

포스트 미-중 분쟁, 글로벌 무역구조 재편



자료: CEIC, 삼성증권

차이나 테크 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미래 신성장 산업 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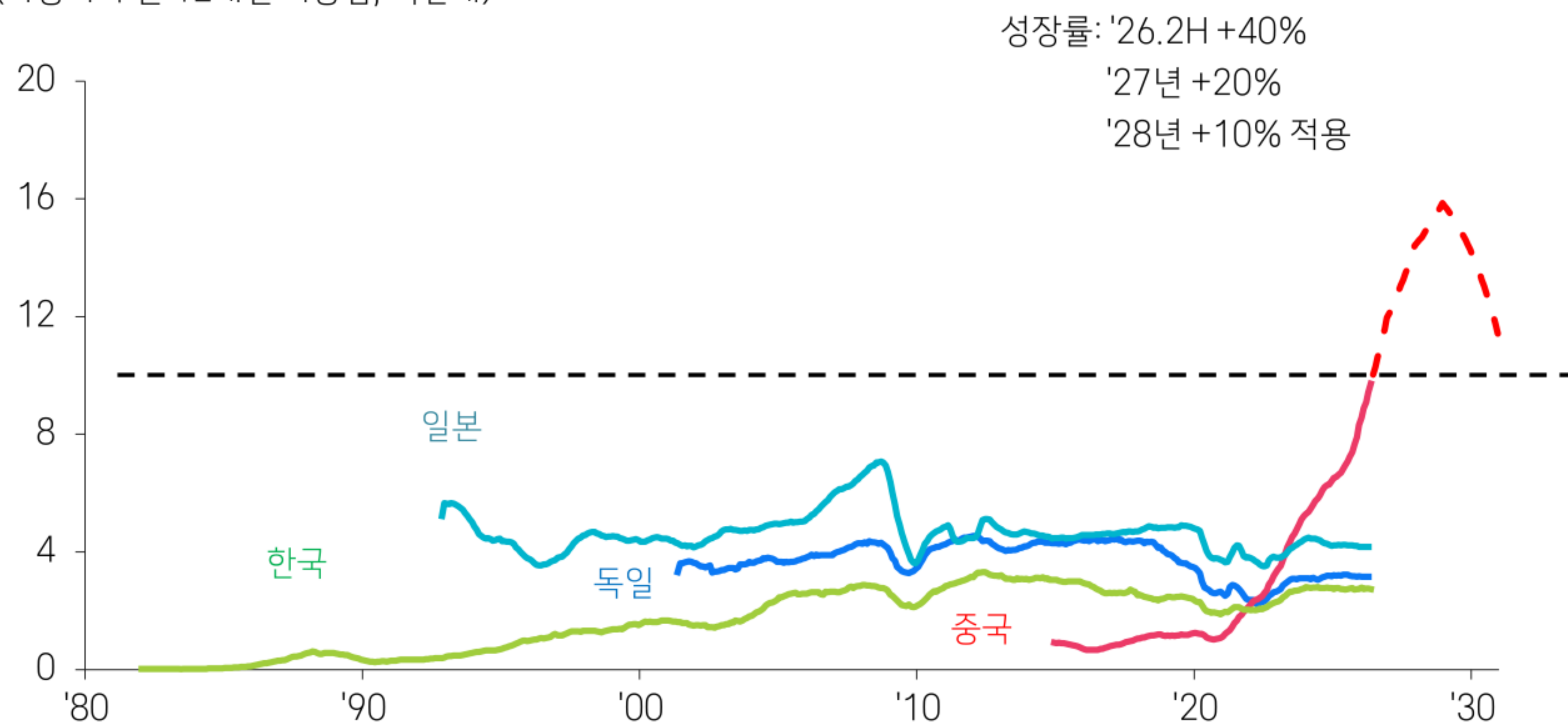
- 또 하나의 주목되는 중국 수출 구조 변화는 '품목 고도화'이다. 지난해 중국의 하이테크 수출은 1.13조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고 하이테크 수출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31.0%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전기차와 IT 부문 수출이 드라마틱하 증가하며 1~4월 전기차와 하이테크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73.3%와 +31.3%로 전체 수출 증가율(+14.3%)을 압도하였다.
- 차이나 테크의 폭발적인 수출 확대는 미래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년 108만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832만대로 연평균 50.4% 증가했으며 올해는 1,150~1,200만대 수출이 유력하다. 6년 만에 자동차 수출이 10.6배 이상 증가하는 전무후무한 대약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자동차 굴기는 신흥시장 진출과 전기차 세대교체로 이루어낸 것이다.

15.5 경제규획 기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대대적인 구조 재편이 진행될 것이다. 중국이 비교적 단기에 자동차 수출 1위에 등극하는 동안 전통 자동차 수출대국인 독일, 미국, 일본 등 레거시 자동차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된 면이 있다. 중국이 자동차의 메인 스트림이 아닌 신시장(신흥국과 전기차)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차의 글로벌 Majority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신흥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였고 EU의 전기차 상용화 단계에서 급격한 점유율 확대를 동반할 것이다. '24년 Top-10 국가의 자동차 수출량 2,390만대를 감안할 때 1~2년내 중국의 자동차 수출 점유율은 50%를 돌파하고 '30년까지 해외 생산기지 비중을 30~40%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대변화가 불가피하다.

15.5 경제규획에서 중국 정부가 선정한 9대 미래산업과 8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범위는 차이나 테크로 확대된다. 중국의 기술력과 상용화 단계를 감안할 때 차이나 테크의 확장성은 AI 반도체/장비,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우주항공과 바이오 산업에서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전기차 굴기, 글로벌 자동차산업 재편 가속될 전망

(자동차 수출 12개월 이동합, 백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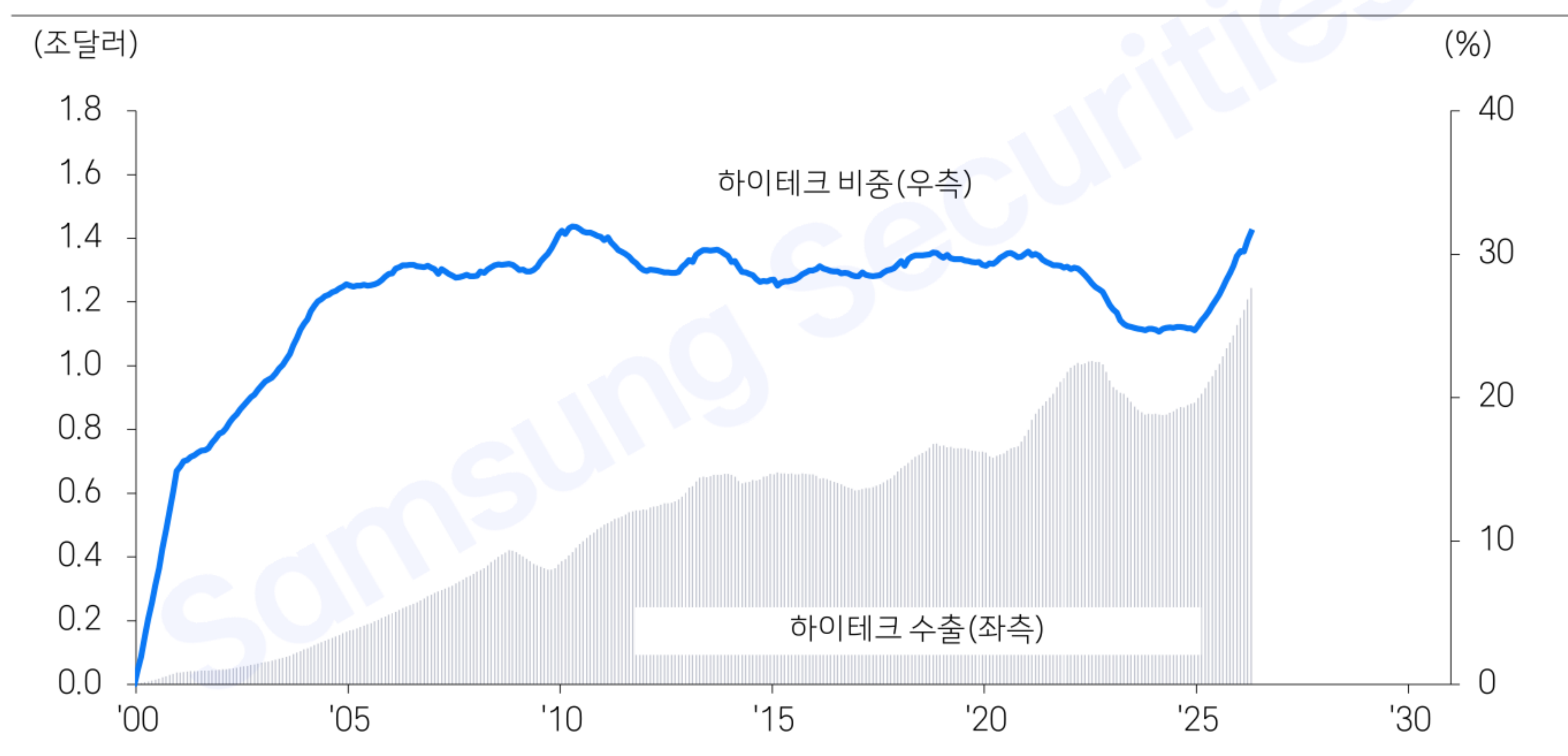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추정

5대 전략 산업 글로벌 경쟁력 비교

경쟁력 순위 (중국 위치)	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로보틱스
	2위	5위	2위	1위	2위
1	US: LLM, 시장규모 1위	US: 설계, 장비, IP 강점	US: 파이프라인, 기초 1위	China: Capa, 매출 압도적 1위	US: AI SW 강점
2	China: 논문, 특허, 데이터 1위	대만	China: 임상, CRO, 데이터 1위	캐나다	China: 설치대수, 부품 1위
3	싱가포르	한국	EU	US	EU
4	영국	일본	일본	독일	일본
5	프랑스	China: 시장, 전력, 패키지 강점	영국	한국	한국

자료: AI = Tortoise index / 바이오 = Belfer CETI / 로보틱스 = IFR, Yole / 반도체 = 설계, 생산, 장비 점유율 / 배터리 = 생산량, 기술력, 정책지원 기준

차이나 테크 수출 1조 달러 돌파



참고: '26년 4월말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